

## 프랑스 文學思潮

—휴우머니즘을 中心으로—

정 연 풍  
(불어과)

### 1.

대학원에서 프랑스 文學思潮를 강의할 때 항상 봉착하는 난관의 하나는 어떻게 한정된 시간을 갖고 프랑스 특유의 문학사조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습득시키고, 그 흐름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하느냐에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프랑스 문학사조 교재개발의 일환으로 휴우머니즘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휴우머니즘 자체를 定義하기 위한 깊은 학문적 연구를 하기 보다는 모든 학생이 반드시 알고 이해하여야 할 프랑스 문학사조로서의 휴우머니즘에 더 留意하였다.

### 2.

프랑스 문학에 나타난 첫 문학사조라 할 수 있는 휴우머니즘은 人本思想 또는 人道主義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창작에 있다기 보다는 十字軍運動이 시작된 12세기부터 간헐적으로 나타나서 16세기에 구체화한 고대 그리스와 라틴 사상과 문학의 모방과 부흥에 유래한다. 바로 前의 時代는 제쳐놓고 천년 이상이 지난 고대문화에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 시대의 문학작품의 模型과 形式을 따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나는 思想, 神, 言語까지 踏襲하려는 경향에 대하여 18세기 학자들이 처음 휴우머니즘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어원적으로 humanisme은 라틴어에서 문화라는 의미인 humanitas에서 유래하였다. 하지만 humanitas는 人間本性에 대한 信賴를 바탕으로 한 非基督의인 그리스와 라틴 철학, 문학, 도덕, 예절, 교양 등을 상기시키고 있음으로 휴우머니즘은 그들을 숭배하고 본받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는 경향을 지칭한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휴우머니즘을 고대 문화와 특별한 관계 없이 폭넓게 사용한다. Sartre는 실존주의는 휴우머니즘이라 하고, 공산주의자들은 휴우머

니즘이 곧 자신들의 이상과 일치하는 사상이라고 부르짖었으며, 또한有神論者와無神論者 모두가 서로 휴우머니즘과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文學思潮를論할 때는 누구나 이러한 철학적,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갖는 넓은 뜻의 휴우머니즘이 아니라 단지 12세기 이후 특히 16세기에 일어났던文藝復興運動, 즉基督教神學을爲主로한 교육과 학문에 반대하여人間中心의 고대 그리스와 라틴의 철학과 문학을 본받아 프랑스 문학을潤色하려는 문학활동에 결부시켜서만 휴우머니즘이란 어휘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문학에 의한 프랑스 문학의潤色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니다. 첫 십자군운동이 끝나고 봉건제후의 세력이 안정되자 그 속에서 보호를 받던 성직자들은 지식인의 사명감을 갖고 고대 라틴 작품을模倣하여 운문으로 된 이야기인 roman이라는 형식의 작품을 만들었다. 1150년 경에는 *Roman d'Alexandre*, 라틴 시인 Statius(45?~96)의 작품 *Thébaïde*를 본뜬 *Roman de Thèbe*가 나오고 Virgilius(기원전 71?~19)의 *Enéide*를 모방한 *Eneas*가, 그리고 1165년 경에는 Benoît de Saint-Maure<sup>(1)</sup>라는 성직자가 그리스 서사시 *Iliade*에 있는 Troie전쟁 이야기를 모방한 *Roman de Troie*가 나왔다.

따라서 12세기 후반에는 이미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화에 바탕을 둔 라틴어 作品의 模倣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휴우머니즘의 싹이 이미 솟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12세기까지는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화에 관한 문헌이 거의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성직자나 지식인 또는 吟遊詩人들이 학문적인 바탕을 갖고 고대 작품을 모방하지는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대 문화의 휴우머니즘적인 본성을 의식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와 라틴 문화의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 휴우머니즘을 추구하는 다음 세대의 학문적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는 roman 작가들의 휴우머니즘의 發芽를 위한 공헌은 인정하여야 한다.

고대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학문적인 연구를 시작한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16세기에 휴우머니즘을 문학에 부가한 主角들이 敵對視한 13세기 神學者들이다. 신학은 기독교의 이론적인 정립을 위하여 고대 그리스의 Platon, Aristoteles 철학, 특히 三段論法을 도입한다. 비록 이것이 지나친 형식주의에 치우친 스킨라식 신학교육으로 硬化하면서 反휴우머니즘적인 성격을 띠지만 성직자들과 13세기에 괄목하게 번창한 대학의 신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와 라틴 철학과 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라틴어로 번역된 서적을 많이 전파하지 않았다면 휴우머니즘의 부활은 훨씬 늦어졌을 것이 틀림없다.

특히 Thomas d'Aquin(1225~1274)과 같은 신학과 철학에 깊은 지식이 갖춘 이탈리아 성직자는 그가 파리대학에서 강의할 시기(1252~1259)와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1265~1272)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화를 학문적으로 소개하면서 신앙과 이성, 기독교 교리와 Aristoteles

(1) 연대미상의 12세기 吟遊詩人. *Chronique des ducs de Normandie* (1180?)와 *Roman de Troie* (1165?)의 저자.

이론을 神學에 優位를 두면서 結合하려 하였다. Thomas d'Aquin의 思想과 論旨는 처음에는 상당한 저항을 받고 교황청에 의하여 부정되기까지 하였으나(1277) 그의 사상의 정당성을 다시 인정하자(1323) 기독교 사상을 그리스 철학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로 수도원과 대학에 신학교육과정에는 그리스 철학서적을 탐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되고 덧붙여 얼마간의 문학작품도 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인들 가운데는 人間中心의 그리스 문학에 관심을 갖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대 문학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극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며 그 문학의 찬양이나 모방을 위한 일관성있는 특별한 공동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또한 고대 작품을 모방한 창작활동도 없었으므로 문학에서의 휴우머니즘 부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생각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존재는 휴우머니즘이 나타나는 작품을 사랑하는 讀者層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고대 문학의 영향이 명확히 나타나며 人本主義的인 경향도 보여주는 13세기 대표작은 *Roman de la rose*이다. Guillaume de Lorris(?~1238?)가 1225년 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썼다고 알려진 제 1부는 그리스 신화의 여인들(Dido, Phaidra)을 소재로 사랑의 이야기를 즐겨 다룬 라틴 작가 Ovidius<sup>(2)</sup> 작품을 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작가 자신이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인 Amant으로 등장하여 이성보다 감정을 따르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기독교적인 도덕과 사회적인 윤리보다도 개인 감정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非基督敎的 고대 문화의 특성을 보여준다. Jean de Meung(1250~1305?)이 1275년 경부터 1280년 경까지 썼다고 알려진 *Roman de la rose*의 제 2부는 제 1부의 사랑의 이야기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Jean de Meung은 당시 교양인, 지식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모든 주제들에 대하여 고대 철학자들과 문학자들의 작품을 인용, 번역 또는 모방하면서 자기의 사상을 펼친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어떤 독창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 교리에서 해방되어 고대 人性 尊重과 信賴에 바탕을 둔 그의 思惟는 16세기에 휴우머니즘을 부활하여 프랑스 散文을 潤色한 Rabelais(1494?~1553)와 Montaigne(1533~1592)뿐만 아니라 17세기 고전주의 작가인 Molière(1622~1673), Boileau(1636~1711)와 18세기의 Voltaire(1694~1778)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Jean de Meung은 Rablais와는 같은 Loire 출신이며, 현학적인 면모, 생에 대한 낙천주의, 비꼬는 버릇, 무절제성 가운데 떠오르는 휴우머니즘으로 말미암아 13세기의 Rablais라는 評을 받기도 한다. 그의 작품은 비록 세련된 맛을 보여주는 데는 미흡하다 할지라도 문학에 싹이 터서 자라날 휴우머니즘을 예고한다.

Guillaume de Machaut(1300?~1377?)는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학에 관한 該博한 知識과 理解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된 人間으로서의 自我意識이 強한 휴우머니스트였다. 그의 문학에서 휴우머니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은 중세 문학장르에 하나인 dit.

(2) Publius Ovidius Naso (기원전 43~17): 라틴어 시인. *Amours, Héroïdes, L'Art d'aimer, Remèdes d'Amours* 등의 사랑에 관한 시와 비극 *Médée, Métamorphoses* 등의 저자.

로 된 *Dit du Vergier*, *Dit du Lyon*, *Dit des quatre oiseaux*와 특히 60대 노인의 사랑의 경험을 노래한 「참된 箴言」 *Voir Dit*(1364)이다. Daniel Poirion은 *Voir Dit*에는 작가의 *le moi*가 dit의 주제라는 점에서 새로운 세대에 개화될 사랑과 自身の 存在를 테마로한 르네상스 시기의 문학의 싹을 본다.<sup>(3)</sup>

Machaut의 제자로서 ballade, rondeaux, lai, virelai와 같은 여러 형태의 시를 구사하며 다양한 주제를 갖은 1,400편이 넘는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修辭學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아 *Art de dictier*(1392)를 저술한 Eustache Deschamps(1346?~1406?)도 휴우머니즘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비록 그의 시가 덜 다듬어진 경우도 있지만 François Villon(1431~1465?)의 詩에 나타나는 人間存在의 虛無함(les neiges d'antan)과 Pierre de Ronsard(1524~1585)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며 다룬 사랑(Les roses de la vie)의 테마를 그들보다 앞서서 취급하였다. Gustave Lanson은 그의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에서 르네상스의 黎明을 Deschamps 작품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sup>(4)</sup>

위에서 살펴본 시인들은 모두가 라틴어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라틴어로 된 그리스와 라틴 작품들을 인용 또는 모방하며 창작을 한 작가들이지만 이들은 창작 過程에서 자아를 의식하고 자아를 작품에 부각시키었다는 사실은 고대 작품의 단순한 모방의 차원을 넘어서 自我意識과 관계된 휴우머니즘의 孕胎를 보여준다. 봉건귀족들의 보호 속에서 宮廷文學 *Littérature courtoise* 발전에 기여한 이들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고대 신화적 인물이나 봉건귀족을 상징하는 인물, 즉 작가 입장에서 보면 他人인 작중인물의 이야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分身을 직접 주제에 개입시킴으로 12세기 roman 작가들과는 달리 自我의 중요성을 인식한 작가들이다.

물론 궁정문학에 있어서 感性的 自我와 道德的 自我, 感情과 理性, 사랑의 본능과 사회적 제약 사이에 어떤 갈등을 표현하려는 순수한 문학적 목표보다도 봉건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바라는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목표가 더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작가들의 작품에는 객관적인 주제 위에 작가의 주관이 살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귀족을 위하여 봉사하는 입장에 있던 궁정문학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자

(3) Daniel Poirion, *Littérature française*, éd. B. Arthaud, Paris, 1971, P. 64: Jusqu'alors, dans ses dits, Machaut avait discrètement indiqué sa présence. Maintenant il veut se dire, se raconter. Le moi du poète devient le sujet même du poème jusque dans les détails anecdotiques de son existence. Mais cette oeuvre appartient déjà une nouvelle époque. Elle reflète déjà ce sens de la personne qui va définir l'art que nous disons (de la Renaissance).

(4) Gustave Lanson, *Histoire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Librairie Hachette, 1970, P. 156: Malgré sa (Deschamps) culture superficielle et ses étranges bévues il a étudié; sa langue est fortement imprégnée de mots latins. Si bien que ce disciple éclectique de Jean de Meung et de Machaut se rattache aussi d'une certaine façon au grand mouvement qui, sous les règnes de Charles V et de Charles VI, met comme une aube, trompeuse encore, de renaissance.

Il se produit alors, en effet, une sorte réveil de l'humanisme.

자신들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였다. 과거에는 단지 귀족들이나 관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만 자신의 존재의미가 있는 봉사자로서의 역할만 하던 시인(trouvère 또는 jongleur)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사랑을 귀족 앞에서 심각하게 노래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불경과 모독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Jean de Meung, Guillaume de Machaut, Eustache Deschamps은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또한 학자로서의 상당한 명성과 존경을 얻은 후에는 주관적인 思惟를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직접 작품의 테마로 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의 작품은 고대 人本文化의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의 個體, 自我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조로서 휴우머니즘이 부각된 嚆矢가 되는 작품이다. 휴우머니즘의 기원은 긍정문학 작품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작작품 밖에도 휴우머니즘 發芽에 크게 공헌한 번역을 하거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Pierre Bersuire는 라틴어 사학자 Titius Livius(기원전 59~17)의 책을 번역한 *Histoire de Rome*을 출판하였으며, Charles VI의 비서이던 Nicole Oresme(1320?~1382)은 철학, 신학, 수학, 천문학에 該博한 지식을 갖춘 학자로서 라틴어로 번역된 Aristoteles 작품들을 불어로 다시 번역하고, Jean de Montreuil는 신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라틴 정치가이며 웅변가인 Cicero(기원전 106~43), Vergilius, Terentius(기원전 190~159) 같은 라틴 문학자들을 소개하고, Christine de Pisan(1363~1430)은 성경과 라틴 작품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풍자, 혐오와 Jeu de Meung의 남성을 위주로한 윤리에 반대하며 기사도에 전통을 둔 여성존경의 예절을 주장한 여성주의적인 휴우머니스트로 이탈리아 문예부흥에 중심인물인 Boccaccio(1313~1375)의 *Decameron*과 *De claris mulieribus*의 영향을 보여주는 글을 썼다. 이들은 비록 독창적인 창작으로 당시 기독교에 기반을 둔 사상과 습관에서 대중을 해방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어도 성경의 가르침과 도덕에 대치하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바탕을 둔 思惟와 도덕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신보다 인간에 더욱 관심을 갖는 휴우머니즘 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 3.

프랑스가 영국과 백년전쟁(1337~1453)을 치르는 동안 프랑스 국내의 문학활동은 자연히 침체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15세기 후반부터 고대 그리스 문헌에 관한 문헌학적 연구가 강화되어 16세기 지식인들은 중세 지식인들보다 그리스 문학에 관한 좀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실제로 16세기 휴우머니즘이 중세에 나타났던 휴우머니즘과 다른 점은 創作의 量的인 증가에도 있지만 그보다도 고대 작품의 이해와 그를 바탕으로 한 創作의 質的 優位에 있다.

16세기 들어서면서 중세에 미비하였던 문헌학적 연구를 통하여 고대 작품을 정확히 복구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세에는 주제의 내용과 문장의 형태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또한 개인적 해석도 많았던 고전이 본래의 모습을 나타낸다. 학자들은 고대 문화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되고, 먼 과거 문화의 새로운 이해로 가까운 과거, 즉 중세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느낀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중세를 암흑에 비유하는 경향이다. Sorbonne 대학에서 수사학 강의를 하였던 Guillaume Fichet(1433~1480?)는 이탈리아 휴우머니스트 작가인 Gasparin de Barizizza의 서간문 *Epistolae*(1470)을 중세의 무지에서 오는 암흑을 추방하는 광명에 비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1471 Robert Gagnin 쓴 서신에서 “les dieux et les déesses font renaître chez nous la science de bien dire”라고 非基督教 神들에 대한 칭송을 하였으며, Gaguin은 Fichet의 수사학에 관한 저서 *Rhetorica*(1471)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면서 파리 사람들은 그가 화법의 암흑에 웅변의 횃불을 밝힌다 “fait briller le flambeau de l'éloquence parmi les ténèbres du discours”라고 말하고 있다고 서신을 보냈다.

중세를 암흑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16세기 휴우머니스트들에게는 이미 일반화한 것 같다. 의사의 직업을 가졌지만 휴우머니스트 소설가로 더욱 명성을 남긴 Rabelais가 쓴 작품 *Pantagruel*(1532) 속에서도 Gargantua가 아들 Pantagruel에게 보낸 편지에 중세를 암흑에 비유하며 16세기에는 광명을 찾았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Le temps était encore ténébreux et sentant l'infélicité et calamité des Goths qui avaient mis à destruction toute bonne littérature. Mais, par la bonté divine, la lumière et dignité a été de mon âge rendue ès lettres, et y vois tel amendement que de présent à difficulté serais-je en la première classe des petits grimauds, qui, en mon âge viril, étais(non à tort) réputé le plus savant dudit siècle...Maintenant toutes disciplines sont restituées, les langues instaurées: grecque, sans laquelle c'est honte qu'une personne se dise savant; hébraïque, chaldaïque, latine.*<sup>(5)</sup>

과거를 암흑에 비유하고 새 세기를 광명의 시대로 생각하는 경향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세와 같이 原典의 註釋에 의존하기 보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 原典을 직접 연구함으로써 原典의 眞價를 파악한 학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의식이 지식인들 사이에 일반화한 것은 고대 작품의 정확한 이해에 의한 학문 전반에 걸친 再照明이란 문예부흥에 사명감을 갖춘 데에 큰 원인이 있지만 또한 사회적인 역전의 변화에도 적지않은 원인이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François I세(1494~1547)의 등장이다. 1515년에 왕위에 오른 François I세는 많은 전쟁을 치렀어야 했음으로 학문에 큰 취미를 갖지는 못하였어도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학자와 예술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1530년에는 현재 파리에 있는 Collège de France의 전신인 왕립학교 Collège des lecteurs royaux를 설립하여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교육하게 하여 고대 문헌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1506년부터 프랑스에 자주 거주

(5) François Rabelais, *Pantagruel*, chap. III.

하며 왕족들과 François I세를 위하여 일하다가 프랑스에서 사망한 Léonard de Vinci(1452~1519)를 비롯한 Château de Fontainebleau의 내장을 한 Benvenuto Cellini, Le Titien, Le Primatice와 같은 이탈리아 예술가와 건축가들을 프랑스에 오게하여 우아하고 사치스러우며 밝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을 본받은 궁성들을 건축하였다. 따라서 궁성으로부터 중세의 종교적인 전통에서 유래한 엄격한 금욕주의,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생활습관과 정신적 풍토에서 탈피하여 人生을 즐기는 人間爲主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여기에 Christophe Colomb의 美大陸發見(1492), Vasco de Gama의 인도여행(1497), Fernand de Magellan의 탐험과 人體에 관한 의학적 지식의 발달은 모두 성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人間存在에 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Fichet나 Gaguin 같은 15세기 말의 일부 수사학자들이 라틴어 원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세를 암흑에 비유하며 고대 人本文化에서 광명을 찾으려한 경향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François I세의 등장, 이탈리아 르네상스 영향, 새로운 세계의 발견, 人間肉體에 관한 종교적이 아닌 과학적, 생물학적 개념의 신뢰에 힘입어 모든 지식인들에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문헌학자들에게 고대 문헌의 새로운 개발에 의하여 광명을 찾는다는 사명감을 주었다. 이들은 古典의 原典보다 原典의 註釋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지성의 발달을 위한 창조적인 비판정신은 전혀 없이 현학적 空論을 되풀이하는 중세 전통적 교육에 반대하여 고대 人本文化의 原典을 개발하고 그 정신을 따르는 휴우머니즘 운동에 앞장선다.

Jacques Lefèvre d'Étapes(1450~1536)은 비록 라틴어와 그리스어 자체에 대한 깊은 지식은 없었어도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는 남다른 사랑과 이해가 있던 사람으로 직접 原典을 찾아 간결하게 해석하려 노력하였다. 중세와 같이 原典의 註釋에 의존하지 않고 原文에 집착하는 Lefèvre의 태도는 문헌학 발전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Platon이나 Aristoteles 같은 그리스 철학자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적 신비주의자, 敎父의 글에도 관심을 갖고 중세의 주석을 뺀 Aristoteles 번역에 Platon의 발췌문을 덧붙여 발간하였으며, 詩篇(Psaume)의 네가지 라틴어 번역도 소개하고(1509), 복음번역(1523), 라틴어로 된 구약 Vulgatus<sup>(6)</sup>판의 불어 번역(1530)도 하였다. Lefèvre는 웅변적이고 화려한 라틴어가 아닌 간결하고 종교적인 라틴어 문체를 옹호한 점에서 그의 업적은 휴우머니스트 문헌학자들의 업적 가운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Lefèvre의 제자인 Charles de Bovelles(1480~1533)은 수학과 철학에 모두 관심을 가져 프랑스어로 기하학에 관한 저서 *Le livre de l'art et science de géométrie*(1511)도 내었으며 특히 이탈리아 Florence의 新 Platon학과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Aristoteles 이론에 반대하

(6) 聖 Jérôme(Hieronymus: 347-420)에 의하여 고대 라틴어 번역과 히브리어, 그리스어 번역을 토대로 완성한 가장 권위있는 라틴어 聖書.

여 macrocosme와 microcosme의 兩立을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는 인간의 사유 밖에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은 세계가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개념을 갖고 세계의 변천은 인간의 변천과 연결지어 수 밖에 없다는 비기독교적인 휴우머니즘이었다. 그리고 언어 문제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통용어와 Gaulois語의 차이”를 연구한 *Liber de differentia vulgariarum linguarum et gallici sermonis varietate*(1533)를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우머니즘을 보여주는 시와 격언도 불어로 남기었다.

Symphorin Champier(1471~1537?)는 의사이지만 모든 학문에 관심을 갖고 휴우머니즘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女權尊重者인 그는 Florence 출신의 이탈리아 휴우머니스트 Marcillio Ficino(1433~1499)의 영향을 보여주는 작품 *La nef des dames vertueuses*(1503)을 저술하고 역시 Ficino의 작품 三重人生 *De triplici vita*에 나타난 개념에 인간은 생리학적 존재로부터 네개의 단계를 거쳐서 기독교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덧붙인 四重人生 *De quadruplici vita*(1507)을 써서 기독교 이론에 그리스 철학을 接合하려 하였다. Champier는 의학서적에도 철학이나 신학적 사색을 첨가하려 하였었고, 특히 아랍 의술에 반대하여 고대 그리스 의술을 찬양한 휴우머니스트이다. Platon에 관한 토론이 지식인들 사이에 高潮된 것은 Lefèvre, Bovelles, Champier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의 영향이 컸으며 그로 말미암아 고대 人本文化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Guillaume Budé(1468~1540)는 문헌학, 그리스어, 라틴어 연구에 전념한 당대에 가장 박식하고 특히 문헌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학자다. 법학을 연구하다 문헌학을 시작한 Budé는 문헌학적인 기초 위에 역사적 상황을 법해석에 관련시키면서 Justinianus 제(7)가 법학자들에게 제작시킨 判例集에 註釋을 달은 24 로마 판여집 주석 *Annotations in quattuor et viginti Pandectarum Libros*(1508)을 발간하고 첫 비교 언어학 연구서라 할 수 있는 그리스어 註解 *Commentarii linguae graecae*(1529)와 문헌학 *Philologia*(1530)도 저술하여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휴우머니스트에게 많은 語學的 도움을 주었다. 특히 Budé는 그리스 문헌에 대하여 라틴어 번역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그리스어 原典을 참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Vulgatus 성경의 라틴어 誤譯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는 모든 작품과 서신을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썼으나 François 제를 위하여 불어로 金言 *Apophtegme*(1522이전)을 헌납하는 애국심도 보였다. 그는 또한 기독교에는 충실하였지만 Lefèvre와는 반대로 라틴어에 있어서는 간결한 문체보다 우아한 문체를 더 선호하였으며,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異敎 哲學인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적인 진리를 共存시키려한 휴우머니즘 경향을 띤 학자다.

이와같이 기독교 성서와 그리스 작품들을 古典 原文을 갖고 문헌학적 연구를 하며 중세 성서의 註釋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學者는 비단 Lefèvre와 Budé 같은 문헌학자 밖에도

(7) Flavius Petrus Sabbatius Justinianus I. (482~565) : 동로마제국의 황제로서 로마제국 재건을 위하여 사회제도와 종교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법학전서를 편찬하게 함.



프랑스에 자주 거주하며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네덜란드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Desiderius Erasmus(1469~1536), 종교개혁을 부르짖은 독일 신학자 Martin Luther(1483~1546)와 프랑스에서 태어나 Placards 사건(1534)<sup>(8)</sup>까지 프랑스에 살았던 Jean Calvin(1509~1564)에도 나타난다. 실제로 처음 종교개혁을 의식하게 된 것은 성경에 관한 고대 문헌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생겼음으로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화 자체에 대한 문헌 연구와 성경 문헌 연구가 한동안 같은 길을 갔다. 그러나 결국 기독교의 종교적인 교리와 자연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에 바탕을 둔 고대 문화의 본질과는 서로 상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진리를 兩立 또는 接合시키려는 노력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 살아온 신학자, 철학자, 문학자와 모든 지식인이 고대 문화의 우수성을 의식하고 기독교 교리를 그 문화와 관련지으려는 시도란 점에서 휴우머니즘 부활의 과도기적 갈등과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고대 문화에 관한 이해가 深化할수록 휴우머니스트들은 점차로 기독교 교리와 독립된 人間條件에 관심을 갖는다. 이미 고대 人本文化의 再昭明에 의한 모든 학문의 復活은 기독교 교리에 집착함으로써 제기되었던 갈등에서 벗어났고, 그 가운데 특히 문학과 철학은 마음껏 고대 문화를 본받아 자신을 深化하고 潤色한다.

#### 4.

프랑스 문학에서 휴우머니즘 경향을 가장 강하게 띠고 또한 휴우머니즘을 하나의 문학사조로서 누구보다도 명확히 문학에 부각시키려 노력한 사람들은 16세기 중반에 나타난 젊은 시인들이다. Joachim du Bellay(1522~1560)와 Pierre de Ronsard(1524~1585)를 중심으로 한 소위 Pléiade<sup>(9)</sup> 七星詩人들은 고대 그리스와 라틴 시인들의 걸작과 문예부흥기의 이탈리아 시인들의 라틴어 시를 직접 읽고 그 아름다움에 크게 감명을 받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Francesco Pertrarca(1304~1374)나 Baccaccio같은 작가들이 나타나 이탈리아 문학을 쇄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학을 본받아 創作을 한 결과에 있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시인들도 고대 시인들의 걸작을 모방함으로써 프랑스 시를 새롭게 潤色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중세 시인들이나 16세기 초의 대표적인 시인 Clément Marot(1496~1544)가 고대 걸작과 이탈리아 문예부흥 시기의 시들을 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구성과 그 속에

(8) 1534년 10월 17일 밤에 개신교 신자들이 궁성 문에까지 벽보를 붙이고 가톨릭에 반대하자 François I세는 카톨릭 편을 들어 많은 개신교도들을 박해한 사건.

(9) 기원전 3세기 경에 12 음절 시를 쓴 7명의 시인에게 주었던 명칭으로 16세기에 프랑스에서 Ronsard, Du Bellay, Remy Belleau, Jodelle, Dorat, Baif, Pontus de Tyard가 취한 시인 단체 이름.

숨겨진 아름다움을 충분히 고찰하지 않은 것 같다. Marot는 일찍 宮廷試人이 되어 François 1세의 특히 휴우머니스트 학자들에 둘러싸여 지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대 문화에 넓은 지식을 갖고 있던 François 1세의 누님 Marguerite de Navarre(1492~1549)를 위하여 시를 쓰고 그녀의 비서 역할도 하였으나 그의 시는 휴우머니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궁정시인이었던 그의 부친 Jehan Marot에게서 받은 듯한 전통적인 중세 궁정시의 영향을 나타내는 언어의 유희, 유희와 리듬의 재치있는 처리에서 더 독특한 재능을 보여준다.

실제로 16세기 중반까지 시는 천부의 시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전설이나 교훈을 소재로하여 즉흥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하여 어떤 일관된 법칙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법칙을 고대 그리스와 라틴 걸작에서 배워야만 한다는 주장을 제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파리에 있던 Coqueret 대학에서 Jean Dinemandi Dorat(1508~1588)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고대 非基督教 文化的 根本精神, 고대 시인들의 표현법,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의 語學的인 차이를 명확히 풀어서 이해시키자, 이 강의를 받던 Du Bellay, Ronsard 등 젊은 시인과 문학도들은 고대걸작의 본질과 구성을 모방하고 프랑스어를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시를 비롯한 문학을 프랑스로 새롭게 부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동료 시인들의 동의를 받아 Du Bellay가 편집한 일종의 문학운동 선언문 *De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1549)에 가장 자세하고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 선언문과도 같은 책의 제목은 단순히 프랑스어 옹호와 선양에 목적을 두고 있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휴우머니즘 부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 책의 제 1권 *La défense de la langue française*에서는 프랑스어로도 그리스어나 라틴어로 된 걸작과 같은 걸작을 쓸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프랑스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는 고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문학을 동화하여 제것으로 만든 것과 같이 고대 작품들의 眞髓를 동화하고 모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5章부터 8章까지 표명함으로써 휴우머니즘을 문학, 특히 詩文學 부활을 위한 철학으로 제시한다. 제 2권 *L'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에서는 프랑스 시의 刷新을 주장하고 무엇보다도 중세에 있었던 장르인 ballade, dit, lai, virelai 등 많은 종류의 詩形 대신에 고대 문학의 장르인 épigramme, élégie, épître, sonnet, églogue, 비극, 희극, 서사시로 구분하여 글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휘를 方言, 古語, 新語에서 개발하여 詩語를 풍부하게 하고 作詩法도 다양화할 것을 주장한다.

*De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에 나타난 첫번째 특성은 우선 고대 문학의 절대적인 권위의 인정에 있다. 1549년 경에 Pléiade라는 시인 단체의 이름을 채택한 후에 이 책에 공동으로 서명한 젊은 시인들은 시를 쓰기 앞서서 그 때까지 프랑스에 존재한 시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작품을 남긴 고대 시인들의 시를 龜鑑으로 삼고 그를 배우자고 제창한다. 그리고 고대 시인들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기 위하여는 고대 시 속에 들어있

는 법칙들을 찾아내어 그 법칙들을 프랑스어로 쓴 시에도 적용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De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시인들이 “作詩의 條件” 자체에 관한 개념을 확립하는 공동의 노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定義를 하려는 공동의 試圖을 나타내는 책이란 점에서 프랑스 文學思潮史에 처음 볼 수 있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공동의 創作 理念을 使喚하는 指針書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존중하기로 서명한 시인들은 불어로 글을 쓰지만 그리스와 라틴 문학을 숭배하고 그를 모방하는 휴우머니즘 학파를 형성하여 같은 이상을 추구하며 문학활동을 한다.

이 책의 지침을 따른 첫 작품은 Du Bellay 자신이 쓴 시 *Olive*(1549)다. 이 작품은 Ecole lyonnaise<sup>(10)</sup>에서 흔히 볼 수 있는 Petrarca의 영향을 나타내는 순수한 정신적인 사랑을 고대 신화들을 상기하면서 지은 詩지만 직접적으로 이탈리아 영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Du Bellay가 로마에 체류하면서 쓴 두 작품 *Les Antiquités de Rome*과 *Les Regrets*는 라틴 시인들 특히 Lucanus(39~65)의 시를 모방한 흔적이 보이나 *Les Regrets*에서는 고대 시의 기법을 얼마간 무시하고 개인적인 內的 삶을 묘사하였다.

*De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에 제시된 지침을 지킨 작품을 쓴 시인은 Du Bullay보다도 오히려 Ronsard다. Coqueret 대학에서 7년 동안 그리스와 라틴 문학에 전념한 Ronsard는 Du Bellay보다도 폭넓은 고대문화에 관한 학식을 가졌고 또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말미암아 곧 Pléiade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Ode를 발표하여 시인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Ode는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서정시인 Pindaros(기원전 518~438)와 Anacréon(기원전 560~478), 그리고 가장 뛰어난 라틴 서정시인 Horatius(기원전 65~8)의 시를 모방하며 프랑스어로 시를 씀으로서 *De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에 제기된 주장을 성실히 지켰다. Sonnet 183편을 수록한 *Les Amours de Cassandre*(1552)는 Petrarca를 모방하고, *Les Amours de Marie*(1555)는 라틴 시인 Catullus(기원전 87~54)를 본받았으며, *Les Hymnes*(1555~1556)은 Homeros를 비롯한 그리스 시인들의 讚歌를 모방하였다. Ronsard가 고대 작품을 모방하지 않은 유일한 작품은 종교전쟁 초기에 왕과 가톨릭교를 옹호하기 위하여 쓴 *Les Discours*(1560~1563) 뿐이다.

Ronsard는 고대 걸작들을 모방하였지만 또한 참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서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고대 시의 모방에다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꾸밈없이 융화시킨 시를 많이 남기었다. 그의 시는 금욕주의적인 기독교 교리와는 반대로 인생은 덧없이 흘러감으로 순간적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즐기자는 그리스 人本文化의 향락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테마가 많으며, 고대 신화를 자주 인용하고, 美에 대한 종교적인 숭배를 나타

(10) 1530~1550년에 Lyon에서 활동하던 Champier, Rabelais, Marot, Maurice Sève 등에 붙여진 휴우머니스트 학파 이름.

범으로 프랑스 시들 가운데 휴먼머니즘을 가장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Ronsard는 때때로 너무 분별없이 맹목적으로 고대 문학을 숭배하고 모방하기 바빠서 아무런 비판없이 옛 作詩法을 자신의 詩에 적용하려 하였고, 현학자나 알 수 있는 신화들을 마치 현실과 밀착한 듯이 나열하며, 또한 사람들의 가슴에 와 닿지도 않는 철학을 지루하게 전개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의 시의 가장 큰 결점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의 詩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과 관계된 단어에서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찾으려하여 美와 社會의 權威를 혼동하는 착각을 보여주는 데 있다. 비록 Ronsard의 시가 고대 작품을 모방하여 프랑스어 시 발전의 폭을 넓혔다고는 인정하더라도 그의 시가 고대 문화의 작품을 동화하여 자기 고유의 독창성을 개발하는 데는 미흡하여 작품에 따라서는 마치 그리스와 라틴의 골동품과 같다는 비평도 받는다. Pléiade 시인들은 知性에 호소하던 詩를 感性에 호소하는 시로 바꾼 데는 큰 공헌을 하였으나 너무나 고대작품에 의존하여 그들 가운데 아무도 Villon과 같이 가슴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삶의 진실성있는 절규를 표현하지 못했다.

## 5.

고대 문화를 숭배하고 배워서 그를 자신의 인생관과 세계관 확립의 밑거름으로 삼아 고유의 세계를 구축하였음을 보여주는 작품을 남긴 휴우머니스트 작가는 모방을 자랑하는 시인들이라기 보다는 고대 人本思想에 자신의 인생경험과 思惟를 接合시킨 작품을 쓴 Rabelais와 Montaigne 같은 산문작가들이다.

그리스와 라틴 문학을 숭배하고 모방한다는 좁은 의미의 문학적 휴우머니즘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Rabelais 작품은 휴우머니스트 시인들이 생각하는 휴우머니즘 경향을 갖지 않는다. 그의 작품은 서정시, 서사시, 비극과 같은 고대 문학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없다. 작품의 문체도 또한 그리스와 라틴 문체보다 弄談이 섞인 중세 roman의 대중적이며 해학적인 문체에 가깝다. Rabelais는 1532년 *Pantagruel*(原題: *Les horribles et espouventables faictz et prouesses du très renomé Pantagruel Roy des Dipsodes, filz du Grand Géant Gargantua*)이라는 巨人 Pantagruel의 집안과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23장으로 된 이 책의 내용은 때로는 농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진담을 하는 것 같으며, 동일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어떻게 보면 심각하여 이야기의 부분 부분을 갖고는 이 책이 주는 인상과 의도를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학, 상소리, 허풍, 언어의 유희, 풍자 등을 同伴한 모든 희극적 에피소드가 表出하는 것은 스킨라식 대학교육, 지나친 라틴어 숭상과 空論, 관례적인 재판에 대한 야유이며, 동시에 Gargantua가 아들 Pantagruel에 보낸 편지(*Pantagruel, chap. VIII*)와 Thélème

수도원의 “Fay ce que voudras”(Gargantua, chap. L VII)라는 자연스러운 생활원칙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이상적인 人本主義 생활과 교육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롭고 사치스러운 Thélème 수도원의 생활과 교육은 중세 수도원의 금욕주의 분위기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Thélème 수도원은 自由와 人性의 充足이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휴우머니즘과 기독교 생활의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한다.

Pantagruel보다 2년 후에 출판한 Gargantua(原題: La vie très horrifique du grand Gargantua, père de Pantagruel)는 Pantagruel에 이미 나온 주제들을 다시 취급하고 있지만 이야기의 줄거리들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또한 Rabelais 자신이 경험하여 잘 아는 수도원 및 대학의 생활과 당시의 풍속습관이 좀더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그 가운데 특히 우스꽝스럽게 라틴어를 섞어 모순 투성이의 현학적 공론을 펼치는 중세 교육자들에 대한 풍자와 대치하여 Pantagruel에게 고대 서적들과 자연을 직접 대함으로써 산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Ponocrates 師父의 제시는 명백한 휴우머니즘의 찬양이라 볼 수 있다. Rabelais 작품에는 당시의 휴우머니스트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지식과 지혜의 습득은 곧 고대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고 믿고 도덕적인 진리는 Platon, 법률학적인 진리는 고대 로마법, 종교적인 진리는 성경, 과학적인 진리는 자연과학과 의학에서 찾으려 함으로서 당시 사회에 대한 많은 희극적 에피소드 속에 있는 풍자 뒤에는 휴우머니즘의 바탕을 둔 진리로 중세의 전통과 사상을 타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Rabelais 작품은 당시의 가장 신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종교적, 법률적, 도덕적, 교육적 규범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며 기정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의 생활기록이다. 巨人 Gargantua와 Pantagruel은 바로 이러한 인간형의 상징이며 또한 휴우머니즘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다.

Rabelais보다 한 세대 후에 태어난 Michel Eyquem de Montaigne(1533~1592)의 작품은 문예부흥 초기의 휴우머니스트 작품에 흔히 볼 수 있는 고대 작품의 무분별한 모방의 흔적은 적다. 수필이 하나의 문학 장르로 정착하기 이전에 그가 남긴 독창적인 Essais는 고대 작품에 나타난 사실들을 자신의 인생경험에 비추어보면서 인간조건에 관계된 주제들과 사회문제들에 대한 꾸준한 성찰의 기록이다.

1580년에 출판한 Essais, I·II에는 그가 읽은 고대 작가 특히 Seneca(기원전 4~65)와 Amyot(1513~1593)가 번역한 Ploutarkhos(49~125?)의 작품을 비롯한 많은 고대 역사서적과 회의주의자들의 영향이 보이지만 1588년 발간한 Essais III와 유고를 정리한 글에서는 Montaigne의 독창적인 사유가 더 큰 몫을 차지하고 고대 작가들의 관점은 그의 주장의 정당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첨가하였다. Montaigne의 작품 전체를 통하여 볼 때 독단주의를 철두철미 배격하고 있으므로 어떤 일관된 사상이나 主義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고대 금욕주의와 회의주의 철학의 영향이 보인다.

Montaigne가 중세 기독교적인 금욕주의가 아닌 고대 금욕주의에 耽溺한 것은 그가 가장 큰 友情을 느꼈으나 33세에 夭折한 La Boétie(1530~1563)와의 親交(*Essais*, I, XXVIII)에서 얻은 영향과 고대 금욕주의 철학자 Seneca와 그의 조카 Lucanus(39~65) 작품들을 읽으면서 시작한 것 같다. 그는 영혼의 힘으로 고통과 죽음의 강박관념을 극복하는 것을 가장 존경하여서 Cato<sup>(11)</sup>와 같은 강인한 금욕주의자를 이상적인 인물로 인용한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서 금욕주의는 영혼의 힘에 의하여 고통을 이겨낸다는 데 대한 존경심 밖에도 가장 고통을 적게 받는 방법, 즉 말하자면 고통을 잘 이겨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도 제시된다(*Essais*, I, XX. *Essais*, II, XI) 어떤 면에서는 Montaigne는 고통을 덜받고 즐기며 사는 향락주의를 向한 실용적 방법으로 금욕주의를 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욕주의는 그가 젊은 시절에 고대작품에 나타난 금욕주의자들의 굳건한 태도에 감명을 받고 그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려 시도한 하나의 휴우머니스트적인 행동철학의 표현이다.

그러나 Montaigne가 종교전쟁의 와중에서 재산과 생명까지 잃을 위험을 자주 당하고, 黑死病 때문에 자기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을 보기도 자기만 가족과 도피하여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자신도 結石症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으며 굳건한 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경험을 갖자 인간의 나약함을 切感하고 젊었을 때의 知的인 매력을 느끼었던 고대 금욕주의의 美德에 대하여 회의를 가진다. 그의 작품은 점차로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Seneca의 작품보다 Platon에 가까운 Ploutakhos의 작품에 더 매력을 느끼기 나타난다.

Montaigne의 *Apologie de Raymond Sebond*(*Essais*, II, XII)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독교적인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나 처음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인간의 지성의 한계성과 허영심만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論述이 된다. 인간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고 모든 철학은 서로 相衝한다는 것을 의식한 Montaigne는 어떠한 철학에 귀의하는 대신에 “Je ne sais rien.”이라는 否定的 斷定的인 答도 받아들이지 않는 “Que sais-je?”라는 회의주의 論法을 채택한다. 그러나 그의 회의주의는 극단적 회의주의에서 배제할 수 없는 필연적 귀결인 아무런 주장도 못하는 상태까지 빠지지 않는 다. Montaigne는 얼마간의 회의주의를 갖임으로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탈피하여 사물들 관찰하며, 특정 철학이나 사상에 집착하지 않고 思考의 自律性을 얻고, 新·舊敎 사이의 狂信的 싸움에 대하여도 獨善이 결코 正義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Essais*, II, XII.) 실제로 그의 회의주의는 허무주의에 가깝기 보다는 Francis Jeanson도 지적한 바와 같이<sup>(12)</sup> 절대주의, 독

(11) Marcus Porcius Cato(기원전 93~46) : 로마제국 정치인으로서 Caesar와 Pompeius의 싸움에서 Pompeius를 위하여 끝까지 싸우다 자살한 금욕주의자.

(12) Francis Jeanson, *Montaigne par lui-même* éd. Seuil, 1971, pp.63, 64: Il paraît difficile de contester que Montaigne ait réellement accompli et vécu ce dépassement de son propre relativisme. Et ce qui én fait à nos yeux tout l'intérêt; c'est précisément qu'il ait pu

단주의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과 연결된다 할 수 있다.

고대작품의 영향을 보여주는 금욕주의와 회의주의를 거치며 마지막으로 *Essais*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철학, 사상, 도덕이 아니라 삶의 지혜 Art de vivre의 개발이다. *Essais*의 서문 Au Lecteur에서도 밝힌 “Ainsi, lecteur, je suis moi-même la matière de mon livre.”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Montaigne는 자기 자신을 소재로 삼아 인생을 살펴봄으로서 지상의 삶을 사랑하고 음미하여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인간 자신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는 데서만 인간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휴우머니스트적인 선언을 한다: Il n'est rien si beau et légitime que de faire bien l'homme et dûment, ni science si ardue que de bien et naturellement savoir vivre cette vie; et de nos maladies la plus sauvage c'est mépriser notre être... (*Essais*, III, XIII.)

*Essais*를 보면 누구나 Montaigne의 고대작품에 대한 독서가 아주 광범위하고 휴우머니즘은 *Essais*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ontaigne의 작가로서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고대 휴우머니즘의 부흥과 함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人間理性에 의한, 人道主義의, 人性을 위한 사상을 그의 독창적 문학 장르인 *essais*에 부각시켰다는 데 있다. *Essais*는 고대 휴우머니즘과 그 작품들을 모방하거나 부흥하는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휴우머니즘을 개발하고 潤色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조로서의 휴우머니즘은 Montaigne의 *Essais*에서 가장 完熟한 결실을 보여준다.

## 6.

고대 그리스와 라틴 문화와 문학을 숭배하고 그를 본 받는 단순한 휴우머니즘 경향은 그 기원을 중세 roman, 특히 Guillaume de Lorris와 Jean de Meung이 쓴 *Roman de la rose*와 Guillaume de Machaut의 *Voir Dit*를 비롯한 箴言詩, 그리고 Eustache Deschamps의 시와 같은 중세 궁정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궁정문학에 나타나는 휴우머니즘 경향을 하나의 文學思潮로 認定하기는 未洽한 점이 많다. 궁정문학 작가들은 고대 작품과 사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 바탕 위에 그들을 체계적으로 모방하거나 受容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대 작품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를 모방함으로써 문학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共同의 創作哲學을 갖고 문학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우머니즘을 하나의 創作哲學, 文學思潮로 定立시킨 사람들은 16세기 중반에 나타난 Pléiade 시인들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çaise*는 프랑스어 옹호와 선양을 위하여 프랑스어를 개발하고 확충하여 창작할 것과 문학, 특히

l'accomplir sans renier le sentiment très profond de relativité qui n'a cessé de marquer sa conception des ressources humaines.

시를 부흥하기 위하여는 고대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을 모방하고, 고대문학의 장르를 활용하자는 創作指針이라는 점에서 프랑스 文學思潮史에서 처음 볼 수 있는 創作哲學, 思潮運動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편집한 Du Bellay와 이 책에 공동으로 서명한 Ronsard를 비롯한 Pléiade 시인들은 물론이고 그 후배 시인들도 휴우머니즘 부활이라는 作家意識을 갖고 創作에 臨한다. 바로 여기에 휴우머니즘이 단순한 문학적인 경향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文學思潮로서 創作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16세기 휴우머니스트 시인들은 고대 人本文化를 숭배하고 그 작품들을 모방한다는 의미의 휴우머니즘은 잘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성에 호소하는 詩를 감성에 호소하는 詩로 변화시켰었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너무 고대 작품의 모방에 사로잡혀 진실성있는 감정의 표현이 부족하고 自我의 문제를 독창성있게 작품에 부각하는 自我開發과 관련된 의미의 휴우머니즘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고대 작품의 모방 보다는 그 사상을 同化하여 독창성있는 작품을 쓴 사람은 휴우머니즘을 하나의 創作哲學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으나 휴우머니즘 부활의 作家意識을 갖었던 Rabelais와 Montaigne 같은 散文作家다.

Rabelais의 *Gargantua*와 *Pantagruel*은 중세 기독교에 기반을 둔 사회제도와 풍속습관의 권위를 失墜시키는 諷刺로 가득 차 있으며, 巨人 *Gargantua*와 *Pantagruel*의 思考와 行動律은 바로 人本主義의 부흥을 鼓吹한다. Montaigne의 독창적인 *Essais*는 고대 문화와 Montaigne 자신의 人生經驗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自我省察과 사회문제 探究의 기록이다. *Essais*가 고대 금욕주의와 회의주의를 同化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個人的 獨立과 自由, 人性의 伸張과 充足에만 있을 수 있는 人間의 행복과 값진 삶의 제시다. *Essais*는 휴우머니즘의 結晶이며 휴우머니즘은 *Essais*를 不朽의 散文으로 潤色한다.

휴우머니즘이 단순히 고대 작품을 연구하고 숭배하며 그를 모방한다는 의미로는 중세 궁정문학에서 짝이 터서 16세기 중반기에는 하나의 창작원칙으로 詩文學에 정착되어 그 영향을 18세기 말까지도 미친다. 그러나 휴우머니즘이 고대문화의 人間中心의 思想을 바탕으로 人性의 充足과 伸張을 위한 自我와 人間條件에 관한 새로운 省察이라는 의미로는 Montaigne 작품에 가장 잘 부각되어 그 영향을 바로 다음 세기 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까지도 보여 준다.

## Bibliographie

- F. Robert: L'Humanisme, Les belles Lettres, 1946.  
 J. Bonnot: Humanisme et Pléiade, "Documents France", Hachette, 1966.  
 J. Charpentier: Montaigne ou l'humaniste véritable, Mercure de France, 1933.



J. Plattard: *La Renaissance des Lettres en France*, A. Colin, 1952 (rééd. "Collection U").

V.-L. Saulnier: *La Littérature française de la Renaissance*, P.U.F., 1942. (rééd. "Collection Que sais-je").

A.M. Schmit: *Poètes du XVI<sup>e</sup> siècle*, Gallimard, 1953.

D. Ménager: *Introduction à la vie littéraire au XXI<sup>e</sup> siècle*, Bordas-Mouton, 1968.

## Grands courants des idées littéraires: humanisme français

Joung Youn-Poung

**Résumé**

En préparant le cours de grandes doctrines littéraires, nous avons voulu nous proposer premièrement d'évaluer l'humanisme et ses apports à la littérature française. L'humanisme littéraire comporte un double sens. Le premier se rapporte à la doctrine et au mouvement intellectuel qui ont mis à l'honneur les langues, la pensée et les oeuvres littéraires de l'Antiquité, pour les imiter et pour en tirer une conception nouvelle de la beauté et de l'art. Le deuxième s'associe à la recherche qui, par un retour aux sources antiques et en réaction contre la scolastique, visait à rétablir l'esprit critique et la réflexion personnelle, voulant le développement et l'épanouissement des qualités essentielles de l'homme et le respect de la dignité de la personne humaine.

L'humanisme du premier sens se révèle partiellement dans les romans et dans les pièces en vers de la littérature courtoise. Pourtant les poètes de la Pléiade ont fait de cet humanisme une doctrine littéraire et de versification dont l'influence apparaît même dans les poèmes du 18<sup>e</sup> siècle. L'humanisme de deuxième sens commence à se développer très visiblement pendant le règne de François premier, surtout dans l'oeuvre de Rabelais. Toutefois c'est Montaigne qui l'enrichit des discours sur l'homme, éloge ou blâme de la condition humaine, introspection du "moi", recherche de l'art de vivre. Tous ces thèmes se cristallisent dans ses *Essais* dont certains aspects sont présents non seulement dans les oeuvres de grands écrivains de 17<sup>e</sup> et 18<sup>e</sup> siècle, mais aussi dans la littérature contemporaine.